데스크 시각

문화가 있는 삶

박 진 현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지난 2010년 여름, 취재차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나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한 야외 레스토랑을 찾았다. 현지에선 비어가든(beer garden)으로 불리는 레스토랑은 잔디밭 위에 수십 여개의 테이블을 비치해 말 그대로 정원에서 만찬을 즐기는 느낌을 주었다. 맛있는 음식과 맥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방인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했다. 섬머타임제 때문에 저녁 8시가 넘었지만 해가 저물지 않은 것도 나에겐 색다르게 비쳐졌다.

'예술 일상화' 이끈 가나자와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베를린 사람들의 여유자적한 삶이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스피커에서 왈츠음악이 흘러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잔디밭 한켠에 마련된 스테이지로 올라갔다. 20대 커플에서부터 40~50대 중년 부부,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손녀로 보이는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독일인들의 저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그 순간 밤늦게 까지 일하느라 피곤에 찌든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의 일상이 오버랩됐다. 3년이 흘렀지만 이날 베를린에서 접한 '문화적 충격'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지난 달 방문한 일본 가나자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인구 47만 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시민 세 명중 한 명이 아마추어 예술가라고 할 만큼 문화가 생활 깊숙히 흐르고 있었다. 마침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선 2012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서도호씨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3개월동안 약 5만 여 명의 시민(유료관객)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하지만 가나자와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곳은 시민예술촌이었다. 이와타 쿠미코 촌장의 안내로 둘러본 시민예술촌 스튜디오에는 평일 낮인데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연극연습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시민예술촌은 1993년 다이와 방적공장이 이전하면서 철거위기에 처했던 공장과 부지(9.7ha)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해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공연장이나 갤러리와 같은 발표무대는 많은데 비해 정작 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위한 연습공간이 없는데 착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시는 1994년 시민예술촌 설립을 위한 기구로 산하에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예술창조재단)을 설립했다. 시민들의 일상속으로 문화가 스며들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걸이 원칙을 지켰다. 예술창조재단은 1996년 '시민이 행복한 예술'을 모토로 시민예술촌을 설립해 '예술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광주문화재단, 초심 찾아야

뭐니뭐니해도 시민예술촌의 강점은 시민 디렉터제에 있다. 시설이용자 가운데 선정된 10명의 디렉터들이 예술촌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지향적인 컨셉이다. 또한 시민들의 퇴근 후 이용을 배려해 연중 24시간 개방하고 가나자와 시민이면 누구나 3개월전 예약을 통해 6시간에 1000~3000원이라는 '착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6개의 스튜디오에는 오케스트라, 밴드, 연극 등 각 장르의 예술활동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 말 그대로 '몸만 오면 되는' 시스템이다. 한 해 120억 원의 운영경비 가운데 90%를 가나자와시에서 부담한다. 흉물이었던 방적공장이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문화발전소로 변신한 것이다.

가나자와 출장에서 돌아오니 지역문화계가 광주문화재단(재단)의 '파행'으로 어수선했다. 지난 2011년 '시민이 행복한 문화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부적절한 인사와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출범 2년만에 위기를 맞은 것이다. 설립 취지와 다른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과 광주시의 지나친 간섭때문이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출범한 당초 취지와 달리 광주시가 떠넘기는 이벤트들을 치르기에 바빴다. 게다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늘리는 중장기 정책은 시의 예산절감으로 올해 대폭 줄어들었다. 지금처럼 '지원한 만큼 간섭하겠다'는 원칙을 시가 고수한다면 재단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최근 출범 1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 역시 '문화가 있는 삶'이다. 문화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조차 팍팍한 세상에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문화의 생활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런 점에서 문화수도의 컨트롤 타워인 재단의 위기는 곧 광주의 불행이다. 광주문화재단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사랑의 열매 셋째'

류 동 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몇 주 전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셋째 한번 낳아볼까?" 딸 둘을 기르면서 육아에 힘들어 하면서도 던진 이 말에 필자는 며칠을 고민했다. 재작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눈감으시기 전에 나눈 나와 어머니 대화는 "동훈아, 열심히 살아라", "엄마, 나 셋째 낳을께", "그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행복문화사업단에서는 저출산극복 출산장려 운동을 위해 셋째를 낳고 싶어하는 직장여성이 가사를 써서 만든 '사랑의 열매 셋째', 남편의 가사동참을 호소하는 주부가 가사를 써서 만든 '알콩달콩 쪽쪽',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면서 손자에 대한 사랑을 담은 '끝없는 사랑', 다문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행복해 하는 이야기를 담은 '사랑해요 우리 가족' 등의 노래를 만들어 출산장려 음반을 2000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공연을 했다. 그런데 최근 '사랑의 열매 셋째' 가사를 쓴 주인공이 진짜로 셋째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마 노래 때문에 셋째를 가지게 된 것 같아". 임신 6개월째인데 다행히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다는 소식도 들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온 다문화 여성이 손자를 아직 외할머니께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시민들의 모금을 위한 행복문화사업단의 공연이 7번 있었고, 드디어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갔다. 수도 프놈펜에서 그랏째로 가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4시간의 덜컹거리는 무더운 봉고차에서 둘째 아이는 멀미를 해 심하게 토하면서도 결국 외할머니와 상봉했다. 그런데 아이가 외할머니를 낯설어 해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녁에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강아지 소리를 캄보디아 말로 내면서 흔들어 주니 아이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를 "꺄르르, 꺄르르"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손자를 안고 있는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했고,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도 행복한 천사 같았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결국은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쾌한 진리다. 결국 남기고 가는 것은 자식이다. 사업으로 보자면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남기고 가면 본전을 한 것이고, 셋째부터가 인생의 이윤이 남는 장사다. 그런데 요즘 아이를 하나, 둘 낳고 기르기도 힘든 세상이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육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다. 남보다 위에 올라서서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이런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도 솔직히 아직 셋째는 부담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청소, 설거지, 쓰레기 비우기도 열심히 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집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정을 일구어 나간다면 나도 언젠가는 '셋째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잘해서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즐거워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놀이공원에 있는 말타기처럼 아이를 등에 태워 입에다 동전 넣는 시늉을 하게 하고, 동요를 부르며 흔들며 말태우기를 해주어야겠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축제의 DNA와 킬러콘텐츠

장 용 석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프로듀서

매년 3월에 열리는 호주 애들레이드 워매드 페스티벌(Womadelaide)에 다녀왔다. 남호주(South Australia)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며 축제가 많이 열리는 도시다. 남호주의 슬로건이 '페스티벌 주'(Festival State)일 정도로 축제가 지역의 중심 산업이다.

애들레이드 축제위원회 아래 각기 다른 축제가 연계하면서 개최된다. 그 중 가장 중심은 프린지페스티벌과 워매드다.

한가지 재미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애들레이드의 인구(약 120만)에 비해 관객이 너무 많은 것이다. 워매드가 개최되는 시기에 애들레이드 시 전역에서 6개의 다른 축제가 열리는데 각각의 축제 관객이 평균 5~6만명이 넘는다. 같은 시기에 도시 인구의 삼분의 일이 축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사랑하고 열정적인 참여를 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올해 이상 기온으로 연일 섭씨 36.7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워매드에는 매일 7~8만명의 관객이 모였다. 하루 입장료가 약 13만원 정도, 100개 이상의 지역 상인들의 부스(부스료 4000~6000달러)가 참여하고, 스폰서와 기부까지 받는 이 축제는 철저하게 수익 중심이다.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4일간 개최하는 동안 300억은 족히 넘게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럽기도 하지만 이들의 노하우가 무척 궁금해졌다.

월드뮤직페스티벌을 이끄는 양대산맥은 베를린을 본부로 하고 있는 워맥스(Womex)와 영국이 중심이 되는 워매드(Womad)가 있다. 전자가 마켓을 중심으로 새로운 월드뮤직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둔다면 후자는 월드뮤직 축제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나 두 개의 축제가 공히 같은 점이 있다면 철저히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점이다.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칙들은, 항구성(조직, 시스템), 국제성(개방성), 시장성(자본의 생성과 자립), 지역성(거점과의 연계·협업), 일상성(축제의 외연과 경계 확산) 등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들 중 이런 원칙들이 공히 담겨져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나 워매드같은 경우를 보면, 성공하는 축제의 공통분모가 내재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글로벌 마켓에서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용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자본과 충성고객을 생성하며 선순환하는 구조로서의 축제, 특히 참여와 소통을 이끄는 지역과 일체화된 포지셔닝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들 축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사랑이다.

우리는 종종 지역을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를 육성하자 라는 얘기를 한다.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제 수지를 높이는 핵심콘텐츠를 뜻하지만,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킬러콘텐츠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발현이 아닌 적어도 같은 목적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뤄진, 한 조직에게 강한 동기부여와 일체감을 제공 ▲그것의 성공이 한 개인과 집단만의 성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경제적 성취감에까지 기여 ▲콘텐츠의 제작, 생산, 마케팅 등의 과정이 현재 우리 사회에 통념적으로 일반화된 툴로 진행 ▲지속가능하며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킬러콘텐츠란 게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시행착오, 시대성이 담보가 되면서 성장되듯이, 킬러콘텐츠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처해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메카니즘을 다시한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년 무렵 완공이 예정돼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게 과연 킬러콘텐츠의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특히 충성고객과 지속적으로 잠재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의 축제는 과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걸까? 그리고 진정 '죽이는 핵심콘텐츠'는 무엇일까?

'하의 실종 패션' 따라하는 청소년들 건강 걱정된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통용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꼽으라면 필자는 '하의 실종 패션'이라는 말을 들겠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부추기는 것은 다름 아닌 텔레비전이고, 이런 말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각종 연예오락 프로에서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하의 실종 패션이라는 말을 의역한다면 엉덩이 아래 하반신을 거의 다 노출시킬만큼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잘 먹고 자라야 하는 청소년기에 하의 실종 패션을 강조하다 보니 마른 연예인들 쫓아 한다고 밥 잘 안 먹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게 결국 학생들이 날씬과 마름 혹은 깡마름을 잘 구분하지 못한 체 무조건 살빼기만 몰두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키 163cm에 몸무게 42kg의 여고생이 있다고 하자. 이 정도면 상당히 마른건데도 이런 학생이 밥 대신 닭 가슴살과 야채만 먹는다면? 그것도 하루 세끼가 아닌 두끼만을 그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하체는 빠지지 않고 보기 흉하게 상체만 비쩍 마르는 경우도 적잖다. 이럴 경우 쉽게 늙어보이며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도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안 하니만도 못한 무리한 시도라 결국엔 피부만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면서 각종 부작용만 키울 수 있으니 학생과 가정의 학부모 모두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다.

▲오수금·광주시 북구 두암동

社 說

亞문화전당 성패 정부 지원이 관건이다

오는 2015년 개관할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안이 막연하고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는 등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렇지 않아도 찔끔 예산으로 오픈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관계 장관의 이런 지적에 내후년 개관도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유진룡 문광부 장관은 1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 인터뷰에서 "문화전당은 아시아권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가 중요한데 추진단의 보고는 다소 막연하다"고 말해 콘텐츠 안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전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공사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 운영 주체를 확정하고, 조직·인력 운영 계획도 마련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소견도 피력했다.

문제는 유 장관의 말처럼 문화전당 개관까지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관련 법 정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문화전당 콘텐츠 안도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취지에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일 문화전당 비전을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격 규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산업과 연계할 콘텐츠도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해마다 '찔끔 예산'에 그치고 있으니 걱정이다. 전당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2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인력도 2년 전부터 채용해야 하지만 올 예산은 7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만의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15년 광주 U대회 이전에 개관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등산장 일대 상가 이전 서둘러 추진해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서 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비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무등산장(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음식점과 무등산 정상에 버티고 있는 군 부대, 장불재와 중봉 인근에 설치돼 있는 통신시설의 통합 이전이 시급한 과제다. 이들 시설은 무등산 훼손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증심사지구는 이미 지난 2002년 광주시가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식당 등을 모두 철거하면서 본래의 얼굴을 되찾게 됐다. 상가와 토지 소유주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비가 완료돼 국립공원으로서 면모와 함께 시민들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무등산장 일대 식당 등의 철거와 이전도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광주시는 당초 증심사지구와 동시에 원효사 일원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해 왔다. 시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원효사지구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일대 14만3200㎡ 부지에는 현재 음식점 19곳과 상가 1곳, 휴게소 1곳, 여관 1곳 등 상업시설 22곳이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원효사 인근 계곡에 서식하는 원앙 등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왔다.

광주시와 관리공단 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복원사업에 들어가 오는 201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지만 그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특히 증심사지구 철거 과정에서 상가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사실을 유념해 충분한 협상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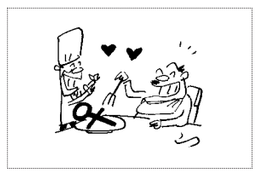
정부도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무등산 정상의 군 부대 이전과 통신시설의 통합 이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성 상납

구약성서 외전에 보면 유대의 부유한 미망인 유디트(Judith)가 등장한다. 강력한 아시리아의 군대가 평화로운 유대의 산악도시 베툴리아를 침략했던 역사적 사실이 배경인데,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적인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당시, 적장 홀로페르네스가 이끄는 군대가 34일간이나 베툴리아를 포위하자 배고픔과 공포에 지친 주민들은 항복하기로 결심한다. 유디트는 그러나 항복하려는 장로들을 꾸짖으며,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략을 밝힌다. 얼마 후 유디트는 광란의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의 막사를 찾아가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한다. 미녀의 출현에 넋이 빠진 적장은 유디트를 침대로 끌어들이고, 욕심을 실컷 채운 뒤 포만감에 빠져 곯아떨어진다. 유디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녀와 함께 칼로 적장의 목을 잘라내 조국에 승리를 바친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공식문서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 상납'의 기록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성(性)을 제공한 남성 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아니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성 상납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세계 1차대전 중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마타하리를 비롯해 중국 춘추시대 월 왕 구천의 명을 받고 오 왕 부차를 유혹, 결국 오나라를 파멸시킨 서시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에 걸쳐 전해내려오는 유명한 미인계도 실제로는 성 상납에 다름 아니다.

최근 한 건설업자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이른바 권력자들에게 별장에서 여성들을 동원해 성 상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 상납의 폐해가 극심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겠지만 또 한가지, '두려워할 것은 미남·미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교활한 마음'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